가족단위 레저시설 조성

익산 웅포관광지 3지구 대규모 관광 인프라 확충
7월까지 재정 능력 우수 민간투자자 공개 모집

익산시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웅포관광지에 대규모 워터파크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돌입했다.

이곳에 대규모 레저시설이 조성되면 산과 강이 어우러진 경관 속에서 레저시설을 즐길 수 있는 도내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익산시는 웅포관광지 3지구에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민간투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체 웅포관광지(3지구) 가운데 미개발부지 약 28만㎡에 숙박시설은 물론 위락시설과 같은 가족단위 레저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투자자는 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숙박, 테마파크 등의 위락시설을 포함해 관광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자금력과 재정능력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8월 중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웅포 관광지는 골프장과 호텔, 콘도 등으로 구성된 휴양레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2년 36홀 골프장이 준공된 이후 민간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익산시가 미개발 부지 토지 매입 등을 거쳐 올해 사업을 재추진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서게 됐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거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금강변 생태자원과 연계한 힐링·체험 관광지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조하거나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87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동부권 '가족 문화 나들이' 명소 부상

공룡테마공원 놀이시설·산책로
화석전시관 체험시설, 6월 개장

익산 왕궁과 금마면 일대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포함한 관광 요소가 더해지면서 가족 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익산 왕궁과 금마면 일대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포함한 관광 요소가 더해지면서 가족 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왕궁보석테마대표 관광지에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시설이 조성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룡테마공원에 더블돔슬라이드, 미로찾기, 시소 등 놀이시설과 함께 산책로가 조성돼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워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말이면 하루 평균 최대 1,3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폭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화석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영유아와 저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공중모험 놀이시설인 '스카이 트레일', 등반 테마시설 '아트클라이밍', 복합 놀이시설 '트램폴린', 가족 체험시설 '레이저테그' 등을 설치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청년뜰, 지역취약청년 지원방안 간담회

군산시 청년뜰은 지난달 29일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뜰이 지역 취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관내 아동양육시설 3개 기관, 더잡,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다.

아동양육시설 청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호종료 청년으로 시설을 퇴소해 사회에 자립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정착 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진로 상담, 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보호종료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

청년뜰은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국비 운영사업에 선정돼 「2021 청년희망멘토링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진로 스트레스, 심리적 우울감, 좌절 등)에 대해 전문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뜰을 중심으로 이번 간담회 참여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보호 종료 청년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청년뜰 청년지원사업부(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상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군산시, 도 경계 넘는 외지 불법어업 지속 따라

군산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해역을 침범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망 어구와 불법 실뱀장어조업에 대해 사전계도와 계고 등을 실시하고, 지난 4월 말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현재까지 도간 경계해역인 옥도면 연도 주변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각망어구와 정치망어구 약 5톤가량을 강제철거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도경계를 넘어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지어선의 무허가 어업행위 등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내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한 조업환경과 지속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여 따뜻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어린이날 행사 비대면 개최

익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제99회 어린이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5일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와 사단법인 새벽이슬 두 단체에서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놀이체험키트 전달과 사전 제작된 프로그램을 유튜브라이브 송출 통해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된다.

사)삼동청소년회는 연날리기와 팽이치기, 공기놀이 등으로 구성된 민속놀이 체험키트세트 5종 키트 2,700개를 각 가정에 택배로 발송했다. 앞서 공식 홈페이지(https://www.삼동청소년회.kr)를 통해 사전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전달된 키트로 체험활동을 한 영상을 삼동청소년회 유튜브(원불교 중앙교구 미디어)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새벽이슬은 유튜브(사단법인 새벽이슬)를 통해 LED어항, 스칸디아모스, 드림캐쳐, 풍선헬리콥터만들기 중 놀이체험키트 1개를 선택하는 사전신청을 받아 청소년 수련관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1천개의 키트 전달을 마쳤다.

어린이날 당일에는 기념식과 모범어린이 표창, 사전제작된 축하공연 등을 KCN 금강방송, 유튜브로 송출하고 추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익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비대면 방식의 어린이날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부동산 투기 조사에 적극 협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시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자재산등록 현황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전체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15일 군산경찰서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전체 시의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한 요청이 있어 군산시의회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투기 의혹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책임있는 정치로 공정과 희망이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의회, 의원연구 단체 본격 활동 개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경진)가 3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참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소장 최인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용역 추진개요 및 주요 과업 보고, 주제 관련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의원들은 개별 법령을 근거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위탁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도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으며, 올해 11월말까지 의정연구 및 정책대안 발굴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